

“슈틸리케호, 흔들기보다 성원할 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5번째 경기 앞두고 있어 낙담할 단계 아니다”... “U-20 월드컵 성공하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최근 애매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회장은 18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준비현황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에서 대표팀의 부진으로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최종예선을 보면 어느 대회도 편하게 (본선에)간 적은 없다고 본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면서 “5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 현재 낙담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슈틸리케호는 최종예선 4경기를 치르는 동안 2승1무1패(승점 7)로 A조 3위에 처져 있다. 기대이하 경기력으로 대표팀을 향한 비판이 상당하다.

특히 지난 11일 이란 원정에서 0-1로 패한 뒤 슈틸리케 감독의 애매한 발언으로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부진했던 공격에 대해 “카타르의 세바스티안 소리아 같은 선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싶다”며 선수를 탓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후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 회장은 “2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대단한 분이다. 다만 내용과 결과가 실망스러웠고, 갑자기 비판을 들으며 예민해지면서 오해의 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와 서양 문화의 표현 방식에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문화에선 (부진에)감독이 사죄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서양문화에선)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방식인 것 같다”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구 탓을 하거나 핑계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 같다”고 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18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준비현황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공식 엠블럼·슬로건 공개행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겸 대회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명하고 논의하는 방식인 것 같다”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구 탓을 하거나 핑계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독과 선수들이 위축된 경기보다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대표팀을 흔들는 것보다 성원하는 게 한국 축구를 위해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슈틸리케호는 다음달 15일 우즈베키스탄과 최종예선 5차전을 치른다. 최종예선의

반환점으로 9회 연속 본선 진출에 있어 중요한 변수란이다.

우즈베키스탄전에서 패하거나 비길 경우, 슈틸리케 감독의 입지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게 종론이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어떠한 원칙을 미린 정한 것은 없다. 잘 준비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승부의 세계에선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대표팀 경기에서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 한국 축구를 위해 성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정 회장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한국 축구의 재도약을 이끌고 성공적인 유산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재도약과 발전을 이끌 대회”라며 “차외 곳곳에 유산을 남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민근기자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 훈련장 준공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 훈련장이 상평동 정읍체육공원 내에 들어섰다.

국비 1억6천500만원과 시비 3억8천500만원 등 총 5억5천만원의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380㎡(115평)의 규모의 씨름장을 완공하고 지난 17일 준공식을 가졌다.

씨름 훈련장은 체력 단련실과 샤워장, 화장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씨름 훈련장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최형원 전라북도체육회 스포츠진흥처장, 신일 전라북도 씨름협회 회장, 이동운 정읍시씨름협회 회장,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 김준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시장은 “날씨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용 씨름훈련장 준공을 계기로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의 실력이 한층 향상되고 씨름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읍 단풍미인씨름단이 좋은 성적을 거둬 정읍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발전과 정읍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9일 창단된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은 설날·단오·추석 장씨름대회에서 금강급 4품 1회, 한라급 4품 3회를 차지했고 전국장씨름대회 등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 우승, 개인전 2위 2회, 3위 3회 등 상위에 입상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국 K-스포츠클럽 교류대회 21일 개막

전국 시·군·구 29개 스포츠클럽 청소년·성인 1200명 참가

제1회 전국 K-스포츠클럽 교류가 전주시 일원에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북K-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시군구 29개 스포츠클럽에서 수영, 배드민턴, 축구, 탁구 4개 종목에 청소년 및 성인 1,200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클럽활동을 병

행하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겨루는 등 새로운 한국체육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귀중한 첫발을 내딛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유소년 청소년 장년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해 세간각의 운동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와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스포츠클럽의 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은 물론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는 문화교류를 통해 전국 각 지역 K-스포츠클럽간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K-스포츠클럽 이대원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K-스포츠클럽이 한국 체육발전을 견인하는 역할과 K-스포츠

클럽 회원간의 상호친선과 교류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각 경기장별 의료진 배치, 교통 숙박, 경기장 지원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대회 참가를 위해 방문하는 선수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전라북도 이미지를 알리기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에 피겨 김연아 선정

‘피겨여왕’ 김연아(25)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선정하는 2016년도 스포츠영웅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제2차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위원장 이태영)를 열고 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와 국민지지도 정당평가 결과를 심의해 김연아를 2016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는 지난 8월8일부터 9월20일까지 일반 국민, 추천단(40명), 체육단체(96명), 출입기자(29명)를 대상으로 선수 및 지도자 41명, 체육발전 공헌자 13명 등 총 54명을 추천 받았다.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와 심사기자단(29명)은 후보자 54명 중 2차 심사를 거쳐 김연아와 故 김일, 박세리, 박찬호, 故 이길용, 차범근 등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고 정성평가와 국민지지도 조사를 거쳐 김연아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김연아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은메달 등의 성과를 내며 피겨 불모지인 한국을 널리 알렸다. 2012년과 올해에는 국민훈장 모란장과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